2008 농업전망

"농업 · 농촌,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

농업전망 2008 대회, 1,700여 명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1월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08' 대회를「한국 농업 · 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전망대회에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 등 1,7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농가소득 4% 증가할 전망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전망대회는 총3부로 나눠 개최했다. 1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 이란 주제로 열렸고, 2부는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서' 라는 대주제하에 16개의 소주제발표가 있었다. 3부는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이란 주제 하에 쌀 · 곡물, 축산물, 과일 · 야채, 임산물의 산업별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대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국제곡물가격과 유가가 계속 올라 농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낮아진 국경 장벽이 우리 농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전망대회는 농정 수립은 물론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임 장관은 이번 전망대회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 ·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유가 · 곡물가 상승, 농가부담가중

전망대회 1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한국 경제 전망과 농업' 이란 제목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농업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동규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이 '2008년 농업 · 농가 경제전망' 을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2008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4.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성진근 충북대 교수가 '선진화를 지향하는 농정전환 방향' 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2부는 국제 무역 동향과 전망,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과 유통, 새로운 성장 동력, 함께 가는 복지농촌 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곡물 시장의 동향과 전망' 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국제 곡물 가격은 바이오연료 수요 급증과 개도국 중심의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의 증대로 전년 대비 소맥은 46%, 옥수수는 14%, 대두는 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계임 연구위원은 '한국 식품소비 트렌드와 시사점' 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건강을 중시하고 고급화, 간편화, 기호식품, 다양성 확대 방향으로 식품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2007년의 시장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45% 증가한 1조 8,9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촌이주의향 도시민56.3%에 달해

4분과에서 송미령 연구위원은 '농촌정주수요 변화와 전망' 이란 제목으로 "도시민 중 농촌에 살 의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56.3%이고, 10년 내에 농촌 이주를 계획 중인 도시민은 1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3부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발표에서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금년도 단경기 쌀 가격은 수확기보다 3~6%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올해 한육우 사육 두수를 225만~231만 두로 전망하며 산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올해 과일 생산량은 212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미 부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85달러보다 10% 상승할 경우 시설채소 소득 감소율이 9~15%, 20% 상승할 경우 13~20%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전망 2008 대회 개최 장면

농업계 동향

2008 공공비축미곡 28개 품종만 매입키로

2008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품종은 28개로 제한된다.

농림부는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가 인정하는 고품질 품종 육성 등 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군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대상 품종을 제한하고 있다.

※ 선정내역 : (2004) 28개 품종 → (2005) 21개 품종 → (2006) 26개 품종 → (2007) 25개 품종 → (2008) 28개 품종

2008년산 매입 대상 품종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시·군별로 3개 품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전체 163개 시·군에서 총 471개 품종을 선정하여 신청

※ 시·군별 중복품종을 제외한 순 품종 수는 28개 (품종별 신청율 참조)

〈도별 대표 신청품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품종명	추청	오대	추청	주남	동진1호	동진1호	일품	동진1호

〈품종별 신청율〉

구 분	계	동진1호	남평	추청	일미	주남	오대	기 타
신청 수	471	70	53	48	35	30	30	205
(비율)	-100	-14.8	-11.3	-10.2	-7.4	-6.4	-6.4	-43.5

※ 기타 : 고시히카리, 고품, 대안, 동안, 삼광, 상미, 새추청, 수라, 신동진, 오대1호, 오래, 온누리, 운광, 일품, 중화, 태봉, 평안, 호평, 호품, 화성, 화영, 히또메보레

〈출처 : 농림부〉

2단계 지역농업클러스터 신규사업단 22개소 선정 확정

- 3년간 총 1200억원을 지원, 지역농업의 혁신 주체로 육성

새해부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산업이 클러스터 사업지원에 힘입어 지역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본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 경기 화성(웰빙떡), 강원 홍천(한우), 충남 서산(생강), 전북 무주(산머루), 전남 영암(무화과), 경북 영천(와인), 경남 남해(시금치), 제주(마산업)등 22개 사업단(붙임 참조)을 선정 · 발표하였다.

사업계획의 적합성, 다른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해 전문평가단의 3단계 평가(서면, 현장, 공개발표)를 실시한 후 중앙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농산물의 생산 · 유통 · 가공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산업테마(와인, 관광 등) 사업을 선정,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한 것도 금번 선정결과의 특징이다.

- 시 · 군 신청사업단(49개소) → 도(32개소) → 농림부(22개소)

※ 2005년 시범사업단 선정 이후 3년간 신규사업자 선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22개소를 선정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 농업 · 농촌 종합대책에 따라 2005년부터 추진된 역점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정부가 지침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 상향식 사업

○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 · 학 · 연 · 관 협력사업

○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지원, 핵심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패키지로 지원

○ 일정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식품 관련 가공 · 유통업자, 지방대학, 연구소 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3년간 지원 등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농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사업과의 연계를 높이고 관련 사업을 종합지원 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시범사업에서 미흡했던 참여 기관들의 네트워킹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단간 네트워킹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두세 차례 워크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이번 선정에서 사업의지는 높았으나, 아쉽게 탈락한 사업단들이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과 내외부 기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 례
○ 영동포도 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군청 · 대학교 · 기업 등이 참여한 사업단으로 자체 연구 개발한 포도 가공 신기술을 신제품에 도입하여 포도 가공품 매출액이 47% (34억원 → 50억원)신장되고,
○ 관광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페스티벌과 와인포도열차 등을 운영하여 1차 산업에만 머물고 있던 영동포도 산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고도화하면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사업단별 사업계획은 2008년 예산에 맞춰 1월중에 조정 확정하게 되며, 2009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사업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3개년 지원을 원칙으로 사업을 지원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 또는 지원 중단하는 등 사업단 및 지자체의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농림부〉

'맛있는 쌀' 표시방법이 도입된다

–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과 품종순도는 높아야 좋은 쌀

농림부는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 고품질의 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할 경우, 8개 사항(의무 7, 권장 1)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표시사항인 "등급"밖에 없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참고로 현행 양곡표시제도상 쌀의 표시사항 중 의무 표시사항은 ① 품목 ② 생산년도 ③ 중량 ④ 품종 ⑤ 원산지표시 ⑥ 도정연월일 ⑦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 상호명(성명) · 전화번호이고, 권장 표시사항은 ⑧ 등급(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 주로 쌀 외관 상태에 따라 특 · 상 · 보통으로 표시)이다.

이에 따라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종전 쌀의 외관 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하였다.

현행 "등급"은 주로 쌀의 외관에 따른 규격이나, 소비자가 쌀의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품위"로 표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새로 추가되는 "품질" 표시항목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표시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계측 · 검정방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 ·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① 단백질 함량, ② 완전립 비율, ③ 품종 순도 세 가지로 하였다.

"품질" 표시항목별 기준은 우리 쌀의 고품질화 추세, 시중유통 쌀에 대한 품질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해당되는 품질을 표시하면 된다.

"품위"와 "품질"은 권장표시사항으로 모든 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농림부는 품질 등을 표시하는 업체에게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 품질표시제가 시행되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차별화되어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파워브랜드로의 진입도 쉬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는 단순히 산지나 브랜드 중심의 선호에서 벗어나 품질정보를 토대로 '맛있는 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양곡표시제도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2008년 6월말까지는 종전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농림부〉

쇠고기 이력추적, 2008년 하반기 전국 확대

소와 쇠고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유통경로를 관리하고 질병 유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2008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기관 ·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동 법률안은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식별 기록 · 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소의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명시하였다. 즉,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 양수, 출하 여부를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동 법률안은 한우 쇠고기의 기본적인 유통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향후 한우의 육질 개선 등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산 쇠고기의 차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개정되었는데, 앞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HACCP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 · 추진을 위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2007년 국내 유기식품시장은 25.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기식품의 소비는 늘고 일반 식품과의 가격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시장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국내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5.7% 성장한 3,1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은 1,768억 원으로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24.6% 성장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유기가공식품과 일반식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격프리미엄은 2.82배로서 작년의 3.50배보다 작아져 유기가공식품의 상대 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중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비중은 89%(1,577억 원)로 매우 높으나,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약 88%가 인증 없이 자의적으로 '유기'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유기 원료의 함량 비율에 따라서 유기 표시 자체와 표시의 위치 등을 차등화하고 함유량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산 유기가공식품 중 78%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유기 원료의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새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하세요

– 한 부모 조손가정에도 지원확대, 전국 5만4천 명에 월 평균 117~260천원 지원

올해부터 농림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에 한 부모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까지의 부모 모두 없는 조손가정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 농촌지역의 조손가정은 2006 전체 농가 1,245천호의 약 7%인 87천여 호에 달해 도시지역 조손가정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도 지난해 보다 3%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다니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260천원이, 1세는 229천원, 2세 189천원, 3세 130천원, 4세 117천원 그리고 5세는 167천원이 지원된다. **46페이지로 연결**